



즉시 배포용: 2019년 12월 25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맨해튼의 정통과 유대교도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보고에 대한 주지사의 성명

"저는 지난 화요일에 어퍼 이스트 사이드 맨해튼에서 정통 유대인 남성에게 일어난 언어적 및 신체적 공격에 대해 듣고 혐오감을 느꼈습니다. 이 끔찍하고 비겁한 반유대주의의 행위는 우리의 가치와 모순되며, 이 사건이 휴일에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은 더욱 비열한 일입니다.

저는 주 경찰 혐오범죄 태스크포스(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)에 이 범죄 조사에서 뉴욕시 경찰을 돕고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법으로 엄중히 다스릴 것을 지시합니다.

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우리는 편견과 증오를 용납하지 않으며, 편견과 증오가 그 추악한 머리를 내밀 때마다 이를 규탄할 것입니다."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